아동기 문제행동의 발달궤적과 예측요인*

Developmental Trajectories of Children's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Problem Behaviors and Their Predictors

충북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강 사 차 윤 희
교 수 김 영 희

Department of Child Welfare,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Lecturer : Yoon Hee Cha
Professor : Yeong Hee Kim

◀목 차▶

Ⅰ. 서 론
Ⅱ. 연구방법
Ⅲ. 결과 및 해석
Ⅳ. 논의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mploy the Latent Growth Curve Model(LGM) to investigate the developmental trajectories of children's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problem behaviors and to identify predictors that might have an effect on change and the level of developmental trajectories. Furthermore, we classified the developmental trajectories of children's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problem behaviors, and also analyzed factors which caused differences in developmental trajectories by Semi-Parametric Group-based Modeling. This study used data from wave 1-4(2004~2008) of elementary school fourth grade panel of the Korea Youth Panel Survey(KYPS). The results showed that children's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problem behaviors changed significantly from the fourth grade of elementary school to the first grade of middle school. The predictors for developmental trajectories of children's internalizing problem behaviors were gender, self-control, parental conflict, deviant peers, and attachment to teachers. The predictors for the developmental trajectories of children's externalizing problem behaviors were gender, self-esteem, self-control, and deviant peers. The developmental trajectories of children's internalizing problem behaviors was classified into three groups. The developmental trajectories of children's externalizing problem behaviors was classified into four groups.

주제어(Key Words) : 내면화 문제행동(internalizing problem behaviors), 외현화 문제행동(externalizing problem behaviors), 발달궤적(developmental trajectories), 잠재성장모형(latent growth curve model), 준모수적 집단중심모형(semi-parametric group-based modeling)

Corresponding Author : Yeong Hee Kim, Department of Child Welfare,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Gaesin-dong, Heungdeok-gu, Cheongju-si, Chungbuk, 361-763, Korea Tel +82-43-261-3147 Fax:82-43-260-2793 E-mail: enjoy@chungbuk.ac.kr

* 본 논문은 박사학위 청구논문의 일부임.

Ⅰ. 서 론

2006년도 상반기에 보건복지가족부 산하 정신보건센터 31개소에서 94개 초등학교 학생 7,700명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선별검사를 실시한 결과 우리나라 초등학생 4명중 1명이 정서 및 행동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한 조사에서도 약 20%의 미국 아동들이 정신건강문제를 갖고 있으며, 우울, 불안 및 다른 심각한 문제행동들로 인해 소아정신과를 찾는 아동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State Children's Health Insurance Program, 2009). 뿐만 아니라 멜번 로얄아동병원의 커뮤니티 아동보건센터가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50만 명으로 추정되는 호주 어린이들 가운데 25%가 정신질환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들 중 14%만이 상담을 받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호주동아일보, 2006). 이처럼 아동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정서 및 행동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아동의 정신건강문제는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2008년에 발표된 대검찰청의 범죄분석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은 물론 초등학생이 폭력에 연루되는 사건과 14세 미만의 소년범죄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범행 내용도 흉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아동의 문제행동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아동기의 문제행동은 표현과 증상이 청소년기만큼 현저하지도 않고, 유아기처럼 급격하지도 않기 때문에 문제행동을 발견하는데 시간이 걸리거나 문제의 정도가 심각해질 때까지 방치되는 경우가 많고, 다소 소홀이 여겨지는 경향이 있다.

Costello, Mustillo, Erkanli, Keeler와 Angold(2003)에 의하면 아동기의 문제행동은 일시적으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약 23~61%정도의 아동들은 아동기 이후에도 이전의 문제행동이나 다른 문제행동을 지속적으로 보이며, 적절한 치료 없이 방치되는 경우 더 위험한 문제행동으로 발전되기도 한다. 또한 아동기에 비교적 높은 수준의 문제행동을 보였던 아동들을 14년 후 추적한 연구에서 문제행동을 보였던 아동들은 그렇지 않았던 아동들에 비해 4.6배의 정신병리 증상을 나타냈다는 보고가 있다(Hofstra, Van der Ende, & Verhulst, 2000). Koot, Van Den Oord, Verhulst와 Boomsma(1997)도 종단연구를 통해 아동기때 문제행동을 보인 50% 이상의 아동들이 청소년기나 초기 성인기에 정신병리 증상이나 범죄를 일으켰다고 보고하면서, 문제행동을 해결하기 위한 접근이 청소년기에 이루어질 경우에는 외현적으로 나타나는 문제행동을 표면적으로 수정하기는 용이할 수 있으나, 이미 내재되어 견고해지고 습관화된 아동기의 문제행동 개입에는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며 그 효과 역시 미미하므로 문제행동에 대한 초기 접근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처럼 아동기의 문제행동은 아동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안정적인 특성이 있어 청소년기와 성인기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신정이, 황혜원, 2006; 이경님, 2001; Tomblin, Zhang, Buckwalter, & Catts, 2000). 그러므로 청소년기나 성인기에 이르러 심각한 장애로 진전되기 이전인 아동기의 문제행동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초기 접근을 위한 노력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러한 문제행동의 초기 접근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아동 · 청소년기 정신건강문제의 예방, 조기발견 및 상담 · 치료를 통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의 성장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2009년부터 아동 · 청소년 정신보건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즉 보건복지가족부와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학교와 보건소(정신보건센터)의 협조체계를 통해 선별검사, 사례관리 및 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문제행동을 보이는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여 상담 · 검사 · 치료 등 전문적인 개입을 통해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이 이루어지도록 문제행동아동조기개입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보건복지가족부, 2009).

그러나 Alberto와 Troutman(2006)에 의하면 아동의 문제행동을 중재하고자 할 때, 문제행동 자체에만 초점을 두고 중재를 하게 되면 중재를 했을 때는 쉽게 사라지지만 중재를 중단하면 다시 나타나 다른 문제행동으로 대치되는 현상을 보일 수 있다. 그러므로 아동의 문제행동을 효과적으로 개입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아동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을 분석하고, 그 요인에 대한 중재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지금까지 아동의 문제행동에 대한 예측요인들로 개인요인, 가족요인, 또래 및 학교요인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개인요인 중 아동기 문제행동은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정자, 2003; 이경님, 2002; Dekovic, Wissink, & Meijer, 2004; Kerr & Stattin, 2000, Simons, Paternite, & Shore, 2001). 남아들은 여아들에 비해 비행, 공격성, 일탈또래들과 어울리는 것과 같은 외현화 문제행동을 더 많이 보이는 반면, 여아들은 우울, 불안과 같은 내면화 문제행동을 더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개인요인 중 자아존중감은 아동의 우울, 비행, 폭력 등 다양한 심리 · 사회적 부적응과 문제행동에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심희옥, 1997; 이경민, 2005; 이근욱, 2005; Robinson & Frank, 1994; Siyez, 2008), 자기통제력 또한 아동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보고되고 있다(손미영, 2009; Pratt & Cullen, 2000). 아동기의 스트레스는 아동의 우울성향(김유진, 2009; 신은영, 김경연, 1996; Daniels & Moos, 1990)이나 행동문제(한미현, 1993; Dubow, Tisak, Causey, Hryshko, & Reid, 1991), 무력감, 정서불안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문제행동(송정아, 이양희, 2004)과 직·간접적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요인 중에는 특히 애착과 감독이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 바람직한 부모양육태도(Brody, Dorsey, Forehand, & Armistead, 2002; Galambos, Baker, & Almeida, 2003; Laird, Pettit, Bates, & Dodge, 2003; Scaramella, Conger, Spoth, & Simons, 2002)와 부부갈등(김선미, 1995; 김영희, 이정미, 2002; 김준호, 김순형, 1995; 류경희, 2003, 이상정, 2009; Siegel & Senna, 1994), 부모의 학대(김준호, 김선애, 1997; Hawkins, et al., 2000; Jonson-Reid & Barth, 2000; Widom, 2000)가 아동기 문제행동을 예측하는 요인으로 밝혀지고 있다. 또래 및 학교요인으로는 일탈친구와의 교제(Brendgen, Vitaro, & Bukowski, 2000; Espelage, Holt, & Henkel, 2003; Galambos, Baker, & Almeida, 2003; Kiesner, Poulin, & Nicotra, 2003; Scaramella, Conger, Spoth, & Simons, 2002)가 아동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고 있다. 또한 또래애착(Beam, Gil-Rivas, Greeberger, & Chen, 2002)과 교사애착(문은식, 2002; Ryan, Stiller, & Lynch, 1994)이 아동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아동의 문제행동과 관련된 대부분의 연구들은 아동의 환경을 통합적으로 고찰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아동의 문제행동은 어느 한 가지 요인만으로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아동과 아동이 상호작용하는 다양한 체계가 균형과 조화를 이루지 못한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다(최정연, 2006). Bronfenbrenner(1979)의 생태체계적 이론은 인간이 체계로서 가지는 특성은 물론 인간을 둘러싼 다양한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인간과 환경이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으며 서로를 변화시키는 과정에 초점을 두어 인간과 환경을 이해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개인적 측면뿐만 아니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가족, 또래, 학교 등 다양한 환경체계의 복합적이고 역동적인 과정에 관심을 가지는 생태체계적 관점에서 아동의 문제행동을 이해하고자 한다.

또한 시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아동의 문제행동과 관련된 개인 및 가족과 학교 특성들은 단독적으로 어느 한 시기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상호작용하면서 그 영향력의 크기와 내용을 달리한다(Brody, Kim, Murry, & Brown, 2004; Van den Oord & Rowe, 1997). 그러므로 아동의 문제행동 예측요인들과 문제행동의 관계를 연구할 때 그 시기를 어느 한 시점에 고정시키는 것은 문제행동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하는데 있어 매우 제한적인 방법밖에 될 수 없다. 따라서 문제행동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개입 전략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아동의 문제행동과 관련된 요인들을 종단적인 흐름 속에서 살펴보아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관련 국내연구들은 대부분 횡단연구로 이루어졌고(고정자, 2005; 김영희, 이정미, 2002; 박진경, 도현심, 2001; 이경진, 조성호, 2004; 이상정, 2009; 정미경, 김영희, 2003), 이를 통해서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개인, 가족, 또래 및 학교요인의 역할이 아동의 문제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어떠한 변화 양상을 보이는지에 대해서는 파악할 수 없다. Jones와 Forehand(2003)는 아동의 문제행동은 시간에 따른 변화라는 관점에서 살펴볼 때 많은 유용한 함의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하였다. 즉 아동기의 문제행동이 발달과정을 거치면서 청소년기, 성인기에 지속되지 않는다면, 아동들이 특정시점에서 경험하는 문제들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점차 사라지는 것을 의미하므로 문제행동에 대한 개입의 필요성은 정당성을 확보하기 힘들 것이다. 반면에 아동기의 문제행동이 발달과정을 거치면서 청소년기, 성인기에도 지속된다면, 아동들에게 최적의 적응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문제행동에 대한 다양한 예방 및 개입전략이 강구되어야만 할 것이다.

따라서 시간의 경과에 따른 아동의 문제행동 변화와 이러한 변화가 개인 간에 차이를 보이는지 확인해보고, 시간의 경과에 따른 문제행동의 발달궤적을 예측할 수 있는 주요한 요인들이 무엇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종단자료를 통해 아동의 문제행동 초기수준과 변화율에 차이를 가져오는 예측요인들을 확인할 수 있다면 이들 요인의 변화를 표적으로 하는 예방 및 개입프로그램을 통해 문제행동의 발생을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Duncan, Duncan, & Strycker, 2000).

그러나 시간의 변화에 따른 아동의 문제행동 발달궤적을 추적한 연구는 국내에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국외의 선행연구결과들을 토대로 우리나라 아동들의 경우에는 내면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떤 변화양상을 보이는지 그리고 그런 변화양상에는 개인차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만약 개인차가 나타난다면 무엇이 그러한 개인차를 형성시키는 것인지에 대해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잠재성장모형(Latent Growth Curve Model)은 시간의 변화에 따른 개인의 발달궤적을 추적하고, 개인의 발달궤적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들을 검증하기에 유용한 분석방법이다(Duncan et al., 1999). 하지만 잠재성장모형은 관찰변수중심적(variable-centered) 접근으로 모든 아동에게 적용되는 평균 발달궤적이나 일반적인 경향을 밝히는 데는 유용하지만 집단 내에서 다양한 질적 차이를 밝히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는 방법으로서 아동집단 내 질적으로 차별화된 발달궤적이나 대상별로 상이한 관계를 밝히는데 용이한(정익중, 2007; Chung, Nagin, Hawkins, & Hill, 2001) 준모수적 집단중심모형(Semi-parametric Group-based Modeling) 분석을 통해 아동의 문

제행동 발달궤적이 어떻게 유형화될 수 있고, 그러한 발달궤적 유형의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준모수적 집단중심모형은 개념적으로 종단적 자료를 이용한 군집분석과 유사하지만 횡단적 자료를 이용한 군집분석처럼 한 시기에 비슷한 특질을 가진 사람들을 묶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비슷한 발달경로를 따르는 사람들을 묶어내는 분석기법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준모수적 집단중심모형을 통해 아동의 문제행동 발달궤적의 유형을 살펴 본 연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여러 시기를 반복적으로 측정한 종단자료를 이용하여 아동의 내면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의 초기치와 변화율을 분석할 수 있고 그러한 변화의 개인차를 밝힐 수 있는 잠재성장모형을 사용하여 아동의 내면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의 발달궤적과 발달궤적의 변화와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준모수적 집단중심모형을 통해 이러한 발달궤적이 어떤 방식으로 유형화될 수 있는지 살펴보고, 발달궤적 유형의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할 것이다. 이와 같은 방법은 특정시점에서 아동의 내면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 횡단연구의 한계를 벗어나 아동의 문제행동의 장기적 발달궤적을 예측하고, 이러한 발달궤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힘으로써 발달적 관점에서 아동의 문제행동을 이해하게 할 뿐만 아니라 아동의 문제행동의 초기상태와 발달과정에 있어 개인, 가족, 또래 및 학교요인의 인과적 영향을 이해하게 한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궁극적으로 역동적인 아동의 문제행동예방 및 개입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행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 규명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아동의 내면화 · 외현화 문제행동은 시간에 따라 어떤 변화양상을 보이는가?

〈연구문제 2〉 아동의 내면화 · 외현화 문제행동 발달궤적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3〉 아동의 내면화 · 외현화 문제행동 발달궤적은 어떻게 유형화될 수 있는가?

〈연구문제 4〉 아동의 내면화 · 외현화 문제행동 발달궤적 유형의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전국의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 2,844명과 그 부모를 대상으로 2004년에 조사를 시작한 한국청소년패널조사(Korea Youth Panel Survey, KYPS)의 4개년 자료를 활용하였다. 연구대상 모집단은 2004년 4월 1일 기준 전국(제주도 제외)의 초등학교 4학년들이며, 표집틀로는 2004년 4월 1일 기준 '2004년 교육통계연보' 가 이용되었다. 조사시작 시점에서는 연구대상자가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이었으나 4차년도 조사시점에서는 연구대상자의 대부분이 중학교 1학년 학생이었다. 1차년도 총 연구대상자는 2,844명이었으나, 2차년도 연구대상자는 2,707명으로 95.2%의 응답률을 보였고, 3차년도 연구대상자는 2,672명으로 94.0%를 보였으며, 4차년도에는 2,511명이 응답하여 88.3%의 응답률을 보였다.

2. 측정도구

1) 아동의 문제행동: 종속변인

(1) 내면화 문제행동

내면화 문제행동은 한국청소년패널조사의 설문지에서 '불안 · 우울 · 자살충동' 문항 등 총 6문항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5점 Likert 척도로 본 연구에서는 문항들의 총점을 사용하여 측정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내면화 문제행동의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2) 외현화 문제행동

외현화 문제행동은 한국청소년패널조사의 설문지에서 '일탈행동' 16문항과 '공격성' 6문항 등 총 22문항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22문항의 총점을 사용하여 측정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외현화 문제행동의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2) 아동의 문제행동과 관련된 예측요인: 독립변인

(1) 아동의 문제행동과 관련된 개인요인

① 성별

아동의 성별은 남아는 1, 여아는 0으로 코딩하여 사용하였다.

②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은 한국청소년패널조사의 설문지에서 '자아존중감' 을 측정한 6문항을 사용하였다. 이는 5점 Likert 척도이며 본 연구에서는 문항들의 총점을 사용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③ 자기통제력

자기통제력은 한국청소년패널조사의 설문지에서 총 6문항의 '자기통제력' 문항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5점

Likert 척도이며 본 연구에서는 역점수로 전환한 후 문항들의 총점을 사용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통제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④ 스트레스

스트레스는 한국청소년패널조사의 설문지에서 총 16문항의 '스트레스' 문항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5점 Likert 척도이며 본 연구에서는 문항들의 총점을 사용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⑵ 아동의 문제행동과 관련된 가족요인

① 빈곤여부

빈곤여부는 가구별 소득을 가구원수별 최저생계비로 나눈 욕구소득비에 기초하여 욕구소득비가 1미만이면 빈곤한 것으로 조작화하였다.

② 가족형태

한국청소년패널조사에서 부모에 대한 전화면접조사를 통해 수집된 가족의 구조적 형태를 측정하는 문항을 사용하였다.

③ 부모갈등

부모갈등은 한국청소년패널조사의 설문지에서 총 2문항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5점 Likert 척도이며 본 연구에서는 문항들의 총점을 사용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간 갈등의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④ 부모의 학대

부모의 학대는 한국청소년패널조사의 설문지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사용하는 난폭한 언행을 측정한 2문항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5점 Likert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대에 근접한 것을 의미한다.

⑤ 부모애착

부모애착은 한국청소년패널조사의 설문지에서 '부모애착' 6문항을 사용하였다. 이는 5점 Likert 척도이며 본 연구에서는 문항들의 총점을 사용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와의 애착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⑥ 부모감독

부모감독은 한국청소년패널조사의 설문지에서 총 4문항의 부모의 행동적 감독을 묻는 문항들을 사용하였다. 이는 5점 Likert 척도이며 본 연구에서는 문항들의 총점을 사용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감독의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⑶ 아동의 문제행동과 관련된 또래 및 학교요인

① 일탈친구와의 교제 정도

일탈친구와의 교제정도는 한국청소년패널조사의 설문지에서 개방형으로 기입된 '친한 친구의 일탈경험' 16문항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16가지 일탈행동을 한 친구의 수를 합하여 일탈친구와의 교제 정도를 측정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일탈행동을 하는 친구의 수가 많은 것을 의미한다.

② 또래애착

또래애착은 한국청소년패널조사의 설문지에서 '친한 친구 애착' 4문항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5점 Likert 척도이며 본 연구에서는 문항들의 총점을 사용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또래와의 애착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③ 교사애착

교사애착은 한국청소년패널조사의 설문지에서 '선생님 애착' 3문항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5점 Likert 척도이며 본 연구에서는 문항들의 총점을 사용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교사와의 애착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3.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SPSS 12.0으로 빈도분석, 기술통계 및 Pearson 상관관계 등을 분석하였고, 각 하위변인에 따른 측정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Cronbach's α의 내적 합치도 계수를 산출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AMOS 7.0 프로그램의 구조방정식모형틀 내에서 만들어진 잠재성장모형을 이용하여 아동의 문제행동 발달궤적과 이러한 발달궤적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을 분석하였다. 또한 관찰대상중심적 접근 중 하나인 준모수적 집단중심모형을 사용하여 아동의 문제행동 발달궤적의 다양한 유형을 도출한 후 상이한 발달궤적의 차이를 가져오는 예측요인이 무엇인지 살펴보기 위해 다항로짓분석을 사용하였다.

Ⅲ. 결과 및 해석

1. 아동의 문제행동과 예측요인들의 기술통계

〈표 1〉은 본 연구에서 분석에 사용된 요인들의 기술통계치를 요약한 것이다. 연속변수는 평균(*M*)과 표준편차(*SD*)로 표시하였고, 성별, 빈곤여부, 결손가족여부 등의 명목변수는 사례수(*N*)과 비율(%)로 표시하였다.

2. 아동의 문제행동 발달궤적과 예측요인: 잠재성장모형을 중심으로

〈표 1〉 아동의 문제행동과 예측요인들의 기술통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M *N*	*SD* %	*M* *N*	*SD* %	*M* *N*	*SD* %	*M* *N*	*SD* %
종속변수	아동의 문제행동	내면화	2.109	.824	2.123	.850	2.209	.831	2.590	.763
		외현화	1.435	.236	1.450	.242	1.474	.238	1.504	.240
독립변수	개인요인	성별(남 = 1)	1,524	53.6	1,450	53.6	1,518	53.5	1,329	52.9
		자아존중감	3.491	.675	3.470	.682	3.417	.671	3.442	.663
		자기통제력	3.776	.687	3.640	.695	3.572	.711	3.551	.732
		스트레스	1.896	.704	1.982	.735	2.180	.731	2.397	.712
	가족요인	빈곤	110	4.0	89	3.4	73	2.8	38	1.6
		가족형태	114	4.0	116	4.7	106	4.0	119	4.8
		부모갈등	1.566	.784	1.595	.838	1.609	.828	1.694	.905
		부모학대	1.564	.814	1.520	.830	1.513	.822	1.580	.893
		부모애착	3.733	.730	3.685	.757	3.672	.774	3.553	.786
		부모감독	3.424	.958	3.539	.938	3.595	.877	3.517	.879
	또래 및 학교요인	일탈친구	.357	.608	.535	1.243	.494	.796	.617	1.068
		또래애착	4.216	.640	4.248	.673	4.163	.685	4.163	.694
		교사애착	2.738	.897	2.698	.906	2.676	.856	2.648	.872

〈표 2〉 아동의 내면화 문제행동의 잠재성장모형의 적합도

모형	$\chi^2(df)$	*p*값	*TLI*	*CFI*	*RMSEA*
모형1: 무변화모형	185.066(8)	.000	.844	.875	.088
모형2: 선형변화모형	38.860(5)	.000	.955	.978	.047
모형3: 이차곡선변화모형	26.818(3)	.000	.933	.983	.053

1) 아동의 내면화 문제행동의 발달궤적과 예측요인

(1) 내면화 문제행동의 발달궤적

4년 동안 아동의 내면화 문제행동이 어떤 형태로 변화하였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3가지 유형의 잠재성장모형을 설정하여 모형적합도를 비교분석하였다. 아동의 내면화 문제행동의 3가지 유형의 잠재성장모형 적합도는 〈표 2〉와 같다. 잠재성장모형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3가지 모형 중 선형변화모형(모형2)이 χ^2값이 가장 낮고 다른 적합도도 매우 높게 나타나 본 연구에서는 선형변화모형(모형2)을 내면화 문제행동의 발달궤적 모형으로 결정하였다.

아동의 내면화 문제행동 발달궤적을 살펴보기 위해 초기치와 변화율을 잠재변인으로 하여 관측변인인 2004년~2007년까지의 내면화 문제행동으로 가는 경로를 각각 설정하였다. 초기치와 기울기의 평균과 변량에 대한 추정치는 〈표 3〉과 같다. 초기치의 평균은 12.527, 변량은 10.570으로 모두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내면화 문제행동의 초기치가 아동들 간에 상당한 개인적 차이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년간의 변화율의 평균은 .368로 나타나 초등학교 4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에 이르는 4년 동안 아동들의 내면화 문제행동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변화율의 변량도 .912로 유의미하게 나타나 내면화 문제행동의 변화율이 아동들 사이에서 개인적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초기치와 변화율은 −.423의 부적상관을 보이고 있어 1차년도의 아동의 내면화 문제행동의 수준(초기치)이 높을수록 아동의 내면화 문제행동의 증가가 느리게 진행됨을 알 수 있다.

〈표 3〉 아동의 내면화 문제행동에 대한 잠재성장모형의 추정치

	평 균	변 량
초기치(Intercept)	12.527(.086)***	10.570(.688)***
변화율(Slope)	.368(.038)***	.912(.148)***
초기치 − 변화율의 상관계수	−.423***	

( ) 안은 표준오차, ***$p < .001$

(2) 내면화 문제행동의 발달궤적에 대한 예측요인

아동의 내면화 문제행동의 초기치와 변화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투입한 결과는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표 4〉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예측요인은 아동의 내면화 문제행동 초기치 변량의 59.5%를, 아동의 내면화 문제행동 변화율 변량의 16.9%를 설명하고 있어 비교적 설명력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아동의 내면화 문제행동의 초기치는 자아존중감, 스트레스, 부모갈등의 세 개의 요인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은 아동의 내면화 문제행동의 초기치와 −2.614의 부적상관을 보이고 있어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1차년도에 내면화 문제행동의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아동의 내면화 문제행동 발달궤적의 예측요인

초4(2004) 예측요인		내면화 문제행동 초기치	내면화 문제행동 변화율
	R^2	.595	.169
개인 요인	성별	.151	−.369***
	자아존중감	−2.614***	.110
	자기통제력	.299	−.739***
	스트레스	2.789***	−.018
가족 요인	빈곤여부	.662	−.173
	가족형태	.377	−.150
	부모갈등	.680***	−.268**
	부모의 학대	.035	.067
	부모애착	.221	−.020
	부모감독	.056	.021
또래 및 학교요인	일탈친구 교제정도	−.152	.132*
	또래애착	.041	−.086
	교사애착	.139	.138*
χ^2 = 99.746(df = 31), p 〈 .001, *TLI* = .968, *CFI* = .994, *RMSEA* = .028			

*p 〈 .05, **p 〈 .01, ***p 〈 .001

〈표 5〉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의 잠재성장모형의 적합도

모형	$\chi^2(df)$	p값	*TLI*	*CFI*	*RMSEA*
모형1: 무변화모형	302.295(8)	.000	.806	.844	.114
모형2: 선형변화모형	34.189(5)	.000	.969	.985	.045
모형3: 이차곡선변화모형	40.905(3)	.000	.933	.980	.067

또한 스트레스(2.789), 부모갈등(.680)은 아동의 내면화 문제행동의 초기치와 정적상관을 나타내고 있어 스트레스가 많을수록, 부모갈등이 높을수록 1차년도에 내면화 문제행동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내면화 문제행동의 변화율과 관련이 있는 요인은 성별, 자기통제력, 부모갈등, 일탈친구와의 교제정도, 교사애착으로 나타났다. 남아의 경우 여아보다 내면화 문제행동의 증가속도가 더 느린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통제력(−.739)과 부모갈등(−.268)은 아동의 내면화 문제행동의 변화율과 부적상관을 보이고 있어 자기통제력이 높을수록, 부모갈등이 높을수록 내면화 문제행동은 증가속도가 더 느린 것으로 나타났다. 일탈친구와 교제정도(.132)와 교사애착(.138)은 아동의 내면화 문제행동의 변화율과 정적인 관계를 보이고 있어 일탈경험이 있는 친구가 많은 아동인 경우, 교사와의 애착이 높을수록 내면화 문제행동의 증가속도가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2)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의 발달궤적과 예측요인

(1) 외현화 문제행동의 발달궤적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의 3가지 유형의 잠재성장모형 적합도는 〈표 5〉와 같다. 잠재성장모형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세 개의 모형 중 선형변화모형(모형2)이 χ^2값이 가장 낮고 다른 적합도도 매우 높게 나타나 본 연구에서는 선형변화모형(모형2)을 외현화 문제행동의 발달궤적 모형으로 결정하였다.

외현화 문제행동에 대한 초기치와 기울기의 평균과 변량에 대한 추정치는 〈표 6〉에 나타나 있다. 〈표 6〉에 나타난 바와 같이 초기치의 평균은 31.496, 변량은 13.918로 모두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외현화 문제행동의 초기치가 아동들 간에 상당한 개인적 차이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년간의 변화율의 평균은 .510로 나타나 초등학교 4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에 이르는 4년 동안 아동들의 외현화 문제행동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변화율의 변량도 1.345로 유의미하게 나타나 외현화 문제행동의 변화율이 아동들 사이에서 개인적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초기치와 변화율은 −.447의 부적상관을 보이고 있어 1차년도의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의 수준이 높을수록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의 증가가 느리게 진행됨을 알 수 있다.

〈표 6〉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대한 잠재성장모형의 추정치

	평 균	변 량
초기치(Intercept)	31.496(.092)***	13.918(.757)***
변화율(Slope)	.510(.040)***	1.345(.158)***
초기치 − 변화율의 상관계수	−.447***	

( ) 안은 표준오차, ***p 〈 .001

〈표 7〉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 발달궤적의 예측요인

초4(2004) 예측요인		외현화 문제행동 초기치	외현화 문제행동 변화율
		R^2 .428	.325
개인 요인	성별	1.442***	−.641***
	자아존중감	−1.559***	.322***
	자기통제력	−.889***	−1.285***
	스트레스	2.710***	−.292***
가족 요인	빈곤여부	.536	−.150
	가족형태	−.217	.028
	부모갈등	.550**	−.113
	부모의 학대	.071	−.034
	부모애착	.512	−.110
	부모감독	−.128	.114
또래 및 학교요인	일탈친구 교제정도	.764***	.319***
	또래애착	.222	.047
	교사애착	−.041*	−.113
χ^2 = 114.742(df = 31), p 〈 .001, TLI = .962, CFI = .992, $RMSEA$ = .031			

*p 〈 .05, **p 〈 .01, ***p 〈 .001

(2) 외현화 문제행동의 발달궤적에 대한 예측요인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의 초기치와 변화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투입한 결과는 〈표 7〉에 제시되어 있다. 〈표 7〉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예측요인은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 초기치 변량의 42.8%를,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 변화율 변량의 32.5%를 설명하고 있어 비교적 설명력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의 초기치는 성별, 자아존중감, 자기통제력, 스트레스, 부모갈등, 일탈친구와의 교제정도, 교사애착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의 초기치에 성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남아가 여아보다 1차년도에 외현화 문제행동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1.559), 자기통제력(−.889), 교사애착(−.367)은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의 초기치와 부적인 관계를 보이고 있어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자기통제력이 높을수록, 교사애착이 높을수록 1차년도에 외현화 문제행동의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스트레스(2.710), 부모갈등(.550), 일탈친구와의 교제정도(.764)는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의 초기치와 정적인 관계를 보이고 있어 스트레스가 많을수록, 부모갈등이 높을수록, 일탈경험이 있는 친구가 많을수록 1차년도에 외현화 문제행동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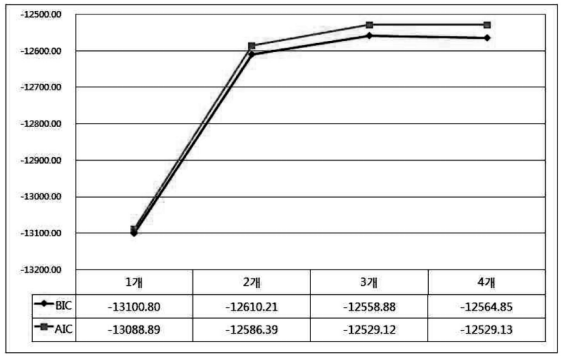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의 변화율과 관련이 있는 요인은 성별, 자아존중감, 자기통제력, 스트레스, 일탈친구와의 교제정도로 나타났다. 남아의 경우 여아보다 외현화 문제행동의 증가속도가 느린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322), 일탈친구와 교제정도(.319)는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의 변화율과 정적인 관계를 보이고 있어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일탈경험이 있는 친구가 많은 아동인 경우 외현화 문제행동의 증가속도가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기통제력(−1.285), 스트레스(−.292)는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의 변화율과 부적인 관계를 보이고 있어 자기통제력이 높을수록, 스트레스가 많을수록 외현화 문제행동의 증가속도가 더 느린 것으로 나타났다.

3. 아동의 문제행동 발달궤적의 다양한 유형과 예측요인: 준모수적 집단중심모형을 중심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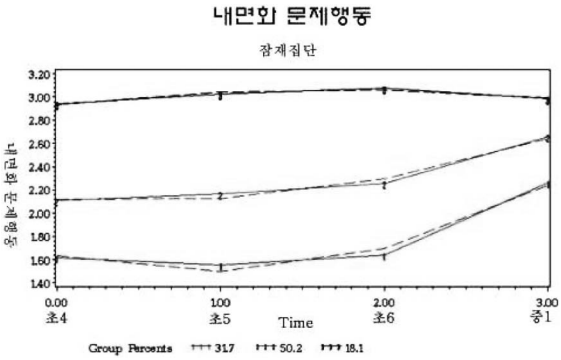
1) 아동의 내면화 문제행동 발달궤적의 다양한 유형과 예측요인

(1) 아동의 내면화 문제행동 발달궤적의 다양한 유형

아동의 내면화 문제행동의 변화에 있어서 적절한 잠재집단을 결정하기 위해 잠재집단의 수를 증가시키면서 그에 따른 AIC, BIC를 비교하였다. 각 잠재집단별로 최적의 변화함



〈그림 1〉 내면화 문제행동의 잠재계층 수(1~4개)에 따른 AIC, BIC 변화



〈그림 2〉 아동의 내면화 문제행동의 변화형태

수를 찾기 위해 2차 함수(quadratic) 모형을 검증하여 2차 함수까지 유의한 경우에는 2차 함수 모형을 바탕으로 AIC, BIC를 산출하였고, 1차 함수(linear)만 유의한 경우에는 1차 함수 모형을 바탕으로 AIC, BIC를 산출하였으며, 1, 2차 함수 모두 유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절편(intercept) 모형을 바탕으로 AIC, BIC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 〈그림 1〉과 같이 잠재집단의 수가 3개일 때까지는 AIC, BIC가 증가하여 모형의 적합도가 좋아졌지만, 잠재집단 수가 4개일 때 AIC, BIC가 약간 감소하여 모형의 적합도가 낮아졌으므로 잠재집단의 수가 3개인 모형을 최종모형으로 선택하였다.

도출된 각 잠재집단의 변화형태는 〈그림 2〉와 같다. 3개의 잠재집단은 각각 반복측정기간 동안 초기에는 내면화 문제행동의 수준이 가장 낮았지만 3차 년도부터 내면화 문제행동이 급격히 증가한 저 · 급증 집단(집단 1, 31.7%), 초기에는 내면화 문제행동의 수준이 보통으로 나타났지만 3차년도를 기점으로 증가한 중 · 증가 집단(집단 2, 50.2%), 4년 동안 내면화 문제행동이 가장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는 고 · 유지 집단(집단 3, 18.1%)으로 구분할 수 있다.

(2) 아동의 내면화 문제행동의 발달궤적 유형에 대한 예측요인

아동의 내면화 문제행동의 최종모형으로 선택된 3개의 잠재집단모형에 독립변수를 추가하여 각 변수의 잠재집단에 대한 효과를 검증하였다. 각 집단을 기준집단으로 설정하여 나머지 집단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개인요인 중 성별, 자아존중감, 자기통제력, 스트레스, 가족요인 중 빈곤여부, 가족형태, 부모갈등, 부모의 학대, 부모애착, 부모감독, 또래 및 학교요인 중 일탈친구와의 교제정도, 또래애착, 교사애착이 잠재집단의 예측요인으로 유의미한지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는 〈표 8〉, 〈표 9〉, 〈표 10〉과 같다.

먼저 아동의 내면화 문제행동 발달궤적의 저 · 급증집단(집단 1)과 중 · 증가집단(집단 2)을 구분 짓는 유의미한 요인은 자아존중감, 자기통제력, 스트레스, 부모갈등, 교사애착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자기통제력이 높을수록, 교사애착이 높을수록 중 · 증가집단(집단 2)보다 저 · 급증집단(집단 1)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또한 스트레스가 많을수록, 부모갈등이 높을수록 저 · 급증집단(집단 1)에 비해 중 · 증가집단(집단 2)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둘째, 저 · 급증집단(집단 1)과 고 · 유지집단(집단 3)을 구분 짓는 유의미한 요인은 자아존중감, 자기통제력, 스트레스, 부모갈등, 또래애착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자기통제력이 높을수록 고 · 유지집단(집단 3)보다 저 · 급증집단(집단 1)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것을 의미하며, 스트레스가 많을수록, 부모갈등이 높을수록, 또래애착이 높을수록 저 · 급증집단(집단 1)보다 고 · 유지집단(집단3)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셋째, 중 · 증가집단(집단 2)과 고 · 유지집단(집단 3)을 구분 짓는 유의미한 요인은 자아존중감, 스트레스, 부모감독으

〈표 8〉 내면화 문제행동의 발달궤적 유형에 대한 예측요인(집단 1 vs 집단 2)

기준집단	비교집단	예측요인		계수	표준오차	T
저 · 급증 집단 (집단 1)	중 · 증가 집단 (집단 2)	개인요인	성별	−0.272	0.318	−0.855
			자아존중	−3.275	0.463	−7.076***
			자기통제	−1.640	0.453	−3.622***
			스트레스	4.237	0.529	8.016***
		가족요인	빈곤여부	1.034	0.837	1.235
			가족형태	0.396	0.624	0.635
			부모갈등	0.869	0.366	2.373*
			부모학대	0.535	0.446	1.201
			부모애착	0.466	0.330	1.412
			부모감독	−0.335	0.247	−1.356
		또래 및 학교요인	일탈친구	0.183	0.270	0.678
			또래애착	0.459	0.257	1.790
			교사애착	−0.749	0.337	−2.218*

*p < .05, ***p < .001

〈표 9〉 내면화 문제행동의 발달궤적 유형에 대한 예측요인(집단 1 vs 집단 3)

기준집단	비교집단	예측요인		계수	표준오차	T
저 · 급증 집단 (집단 1)	고 · 유지 집단 (집단 3)	개인요인	성별	−0.578	0.380	−1.519
			자아존중감	−6.581	0.610	−10.785***
			자기통제력	−2.219	0.511	−4.343***
			스트레스	7.541	0.654	11.536***
		가족요인	빈곤여부	1.016	0.972	1.046
			가족형태	0.887	0.825	1.076
			부모갈등	1.229	0.426	2.884**
			부모학대	0.728	0.491	1.482
			부모애착	0.676	0.399	1.695
			부모감독	0.228	0.315	0.722
		또래 및 학교요인	일탈친구	0.471	0.303	1.557
			또래애착	0.827	0.325	2.540*
			교사애착	−0.579	0.407	−1.423

*p 〈 .05, **p 〈 .01, ***p 〈 .001

〈표 10〉 내면화 문제행동 발달궤적 유형에 대한 예측요인(집단 2 vs 집단 3)

기준집단	비교집단	예측요인		계수	표준오차	T
중 · 증가 집단 (집단 2)	고 · 유지 집단 (집단 3)	개인요인	성별	−0.305	0.242	−1.260
			자아존중감	−3.305	0.396	−8.342***
			자기통제력	−0.579	0.346	−1.675
			스트레스	3.304	0.349	9.471***
		가족요인	빈곤여부	−0.017	0.530	−0.033
			가족형태	0.490	0.567	0.864
			부모갈등	0.360	0.231	1.558
			부모학대	0.192	0.221	0.870
			부모애착	0.210	0.249	0.842
			부모감독	0.563	0.208	2.710**
		또래 및 학교요인	일탈친구	0.288	0.152	1.895
			또래애착	0.367	0.220	1.672
			교사애착	0.169	0.243	0.6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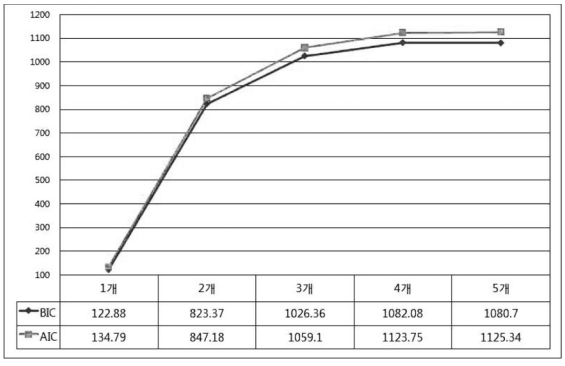
**p 〈 .01, ***p 〈 .001

로 나타났다. 이는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고 · 유지집단(집단 3)보다 중 · 증가집단(집단 2)에 속할 가능성이 높고, 스트레스가 많을수록, 부모감독의 수준이 높을수록 중 · 증가집단(집단 2)보다 고 · 유지집단(집단 3)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2)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 발달궤적의 다양한 유형과 예측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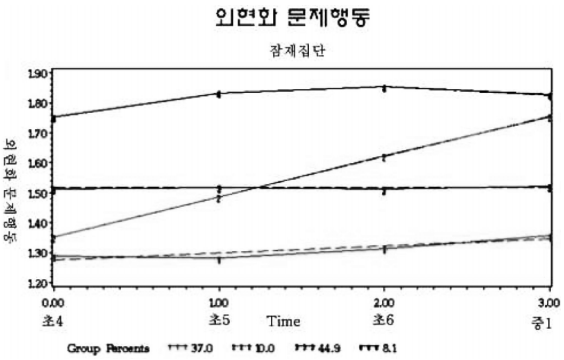
(1)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 발달궤적의 다양한 유형

아동의 내면화 문제행동과 마찬가지로 외현화 문제행동에 있어서 적절한 잠재집단을 결정하기 위해 AIC, BIC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 〈그림 3〉과 같이 잠재집단의 수가 4개일 때까지는 AIC, BIC가 증가하여 모형의 적합도가 높아 잠재집단 수가 5개일 때 AIC, BIC가 약간 감소하여 모형의 적합도가 낮아졌으므로 잠재집단의 수가 4개인 모형을 최종모형으로 선택하였다.



〈그림 3〉 외현화 문제행동의 잠재계층 수(1~5개)에 따른 AIC, BIC 변화

도출된 각 잠재집단의 변화형태는 〈그림 4〉와 같다. 4개의 잠재집단은 각각 반복측정기간 동안 외현화 문제행동의 수준이 가장 낮은 저 · 유지집단(집단 1, 37.0%), 초기에는 집단 1보다 외현화 문제행동의 수준이 약간 높은 집단으로 시간의 경과에 따라 외현화 문제행동의 수준이 지속적이면서



〈그림 4〉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의 변화형태

큰 폭으로 증가한 저 · 급증집단(집단 2, 10.0%,), 반복측정기간 중 일관성 있게 외현화 문제행동의 수준이 보통을 유지하는 중 · 유지집단(집단 3, 44.9%), 반복측정기간 동안 외현화 문제행동의 수준이 가장 높은 집단으로 외현화 문제행동의 수준이 4차년도까지 초기수준으로 유지되는 고 · 유지집단(집단 4, 8.1%)으로 구분할 수 있다.

(2)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의 발달궤적 유형에 대한 예측요인

아동의 내면화 문제행동과 마찬가지로 외현화 문제행동의 최종모형으로 선택된 4개의 잠재집단모형에 독립변수를 추가하여 잠재집단의 예측요인으로 유의한지 검증하였다. 그 결과는 〈표 11〉, 〈표 12〉, 〈표 13〉, 〈표 14〉, 〈표 15〉, 〈표 16〉과 같다.

먼저 아동의 문제행동 발달궤적의 저 · 유지집단(집단 1)과 저 · 급증집단(집단 2)을 구분 짓는 유의미한 요인은 성별, 자아존중감, 자기통제력, 스트레스, 일탈친구와의 교제정도, 또래애착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아의 경우,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자기통제력이 높을수록, 또래애착이 높을수록 저 · 급증집단(집단 2)보다 저 · 유지집단(집단 1)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또한 스트레스가 많을수록, 일탈경험이 있는 친구의 수가 많을수록 저 · 유지집단(집단 1)보다 저 · 급증집단(집단 2)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둘째, 저 · 유지집단(집단 1)과 중 · 유지집단(집단 3)을 구분 짓는 유의미한 요인은 성별, 자아존중감, 자기통제력, 스트레스, 부모갈등, 부모애착, 또래애착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아존중감과 자기통제력이 높을수록, 또래애착이 높을수록 중 · 유지집단(집단 3)보다 저 · 유지집단(집단 1)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것을 의미하며, 남아의 경우, 스트레스가 많을수록, 부모갈등이 높을수록, 부모애착이 높을수록, 일탈경험이 있는 친구의 수가 많을수록 저 · 유지집단(집단 1)보다 중 · 유지집단(집단3)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셋째, 저 · 유지집단(집단 1)과 고 · 유지집단(집단 4)을 구분 짓는 유의미한 요인은 성별, 자아존중감, 자기통제력, 스트레스, 부모갈등, 부모애착, 일탈친구와의 교제정도, 또래애착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아존중감과 자기통제력이 높을수록, 또래애착이 높을수록 고 · 유지집단(집단 4)보다는 저 · 유지집단(집단 1)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또한 남아의 경우, 스트레스가 많을수록, 부모갈등이 높을수록, 부모애착이 높을수록, 일탈경험이 있는 친구의 수가 많을수록 저 · 유지집단(집단 1)보다 고 · 유지집단(집단 4)에 속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넷째, 저 · 급증집단(집단 2)과 중 · 유지집단(집단 3)을 구분 짓는 유의미한 요인은 성별, 자기통제력, 일탈친구와의 교제정도로 나타났다. 이는 남아의 경우, 자기통제력이 높을수록 중 · 유지집단(집단 2)보다 중 · 유지집단(집단 3)에 속할 가능성이 높으며, 일탈경험이 있는 친구의 수가 많을수록 중 · 유지집단(집단 3)보다 저 · 급증집단(집단 2)에 속할 가

〈표 11〉 외현화 문제행동의 발달궤적 유형에 대한 예측요인(집단 1 vs 집단 2)

기준집단	비교집단	예측요인		계수	표준오차	T
저 · 유지 집단 (집단 1)	저 · 급증 집단 (집단 2)	개인요인	성별	−0.961	0.349	−2.753**
			자아존중감	−1.263	0.410	−3.077**
			자기통제력	−5.196	0.517	−10.055***
			스트레스	2.408	0.411	5.864***
		가족요인	빈곤여부	−0.639	0.879	−0.727
			가족형태	−1.272	0.806	−1.578
			부모갈등	0.523	0.346	1.510
			부모학대	−0.368	0.380	−0.968
			부모애착	0.406	0.362	1.122
			부모감독	0.221	0.320	0.691
		또래 및 학교요인	일탈친구	2.634	0.364	7.236***
			또래애착	−0.808	0.271	−2.980**
			교사애착	0.126	0.344	0.366

**$p < .01$, ***$p < .001$

〈표 12〉 외현화 문제행동의 발달궤적 유형에 대한 예측요인(집단 1 vs 집단 3)

기준집단	비교집단	예측요인		계수	표준오차	T
저 · 유지 집단 (집단 1)	중 · 유지 집단 (집단 3)	개인요인	성별	0.662	0.187	3.544***
			자아존중감	−1.504	0.225	−6.686***
			자기통제력	−1.909	0.290	−6.578***
			스트레스	2.490	0.228	10.922***
		가족요인	빈곤여부	−0.117	0.429	−0.272
			가족형태	−0.237	0.446	−0.532
			부모갈등	0.508	0.210	2.420*
			부모학대	0.039	0.217	0.178
			부모애착	0.461	0.206	2.243*
			부모감독	−0.066	0.157	−0.420
		또래 및 학교요인	일탈친구	1.685	0.302	5.580***
			또래애착	−0.375	0.160	−2.346*
			교사애착	−0.123	0.194	−0.635

*p 〈 .05, ***p 〈 .001

〈표 13〉 외현화 문제행동의 발달궤적 유형에 대한 예측요인(집단 1 vs 집단 4)

기준집단	비교집단	예측요인		계수	표준오차	T
저 · 유지 집단 (집단 1)	고 · 유지 집단 (집단 4)	개인요인	성별	0.741	0.313	2.366*
			자아존중감	−2.489	0.363	−6.851***
			자기통제력	−5.728	0.482	−11.878***
			스트레스	4.044	0.348	11.635***
		가족요인	빈곤여부	0.050	0.665	0.075
			가족형태	−1.128	0.657	−1.716
			부모갈등	0.865	0.296	2.918**
			부모학대	0.071	0.289	0.244
			부모애착	0.845	0.319	2.645**
			부모감독	−0.162	0.240	−0.675
		또래 및 학교요인	일탈친구	2.996	0.347	8.625***
			또래애착	−1.125	0.272	−4.133***
			교사애착	0.205	0.317	0.646

*p 〈 .05, **p 〈 .01, ***p 〈 .001

〈표 14〉 외현화 문제행동의 발달궤적 유형에 대한 예측요인(집단 2 vs 집단 3)

기준집단	비교집단	예측요인		계수	표준오차	T
저 · 급증 증가집단 (집단 2)	중 · 유지 집단 (집단 3)	개인요인	성별	1.623	0.343	4.738***
			자아존중	−0.241	0.398	−0.607
			자기통제	3.287	0.485	6.772***
			스트레스	0.082	0.390	0.209
		가족요인	빈곤여부	0.522	0.874	0.597
			가족형태	1.034	0.878	1.178
			부모갈등	−0.015	0.315	−0.048
			부모학대	0.406	0.363	1.118
			부모애착	0.055	0.351	0.157
			부모감독	−0.287	0.311	−0.924
		또래 및 학교요인	일탈친구	−0.949	0.236	−4.015***
			또래애착	0.433	0.266	1.628
			교사애착	−0.249	0.329	−0.758

***p 〈 .001

능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다섯째, 저 · 급증집단(집단 2)과 고 · 유지집단(집단 4)을 구분 짓는 유의미한 요인은 성별, 자아존중감, 스트레스로 나타났다. 이는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고 · 유지집단(집단 4)보다 저 · 급증집단(집단 2)에 속할 가능성이 높고, 남아의 경우, 스트레스가 많을수록 저 · 급증집단(집단 2)보다 고 · 유지집단(집단 4)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중 · 유지집단(집단 3)과 고 · 유지집단(집단

〈표 15〉 외현화 문제행동의 발달궤적 유형에 대한 예측요인(집단 2 vs 집단 4)

기준집단	비교집단	예측요인		계수	표준오차	T
저 · 급증 집단 (집단 2)	고 · 유지 집단 (집안 4)	개인요인	성별	1.701	0.362	4.705***
			자아존중	−1.226	0.412	−2.978**
			자기통제	−0.532	0.428	−1.242
			스트레스	1.636	0.373	4.391***
		가족요인	빈곤여부	0.688	0.845	0.815
			가족형태	0.144	0.803	0.179
			부모갈등	0.342	0.305	1.121
			부모학대	0.438	0.330	1.327
			부모애착	0.439	0.352	1.247
			부모감독	−0.383	0.296	−1.292
		또래 및 학교요인	일탈친구	0.363	0.200	1.809
			또래애착	−0.317	0.278	−1.143
			교사애착	0.079	0.361	0.218

**p < .01, ***p < .001

〈표 16〉 외현화 문제행동의 발달궤적 유형에 대한 예측요인(집단 3 vs 집단 4)

기준집단	비교집단	예측요인		계수	표준오차	T
중 · 유지 집단 (집단 3)	고 · 유지 집단 (집안 4)	개인요인	성별	0.078	0.282	0.278
			자아존중	−0.985	0.315	−3.127**
			자기통제	−3.818	0.427	−8.933***
			스트레스	1.554	0.285	5.459***
		가족요인	빈곤여부	0.166	0.576	0.289
			가족형태	−0.890	0.603	−1.476
			부모갈등	0.357	0.238	1.504
			부모학대	0.032	0.228	0.140
			부모애착	0.384	0.274	1.398
			부모감독	−0.096	0.202	−0.474
		또래 및 학교요인	일탈친구	1.312	0.199	6.604***
			또래애착	−0.751	0.245	−3.059**
			교사애착	0.328	0.273	1.201

**p < .01, ***p < .001

4)를 구분하는 통계적으로 유미한 요인은 자아존중감, 자기통제력, 스트레스, 일탈친구와의 교제정도, 또래애착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아존중감과 자기통제력이 높을수록, 또래애착이 높을수록 고 · 유지집단(집단 4)보다 중 · 유지집단(집단 3)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또한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일탈경험이 있는 친구가 많을수록 중 · 유지집단(집단 3)보다 고 · 유지집단(집단 4)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잠재성장모형 분석을 통해 아동의 내면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의 발달궤적을 확인하고 이러한 발달궤적의 변화와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준모수적 집단중심모형 분석을 통해 아동의 내면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의 발달궤적이 어떤 방식으로 유형화될 수 있는지와 발달궤적 유형의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아 아동의 문제행동의 장기적 발달궤적을 예측하고, 이러한 발달궤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힘으로써 발달적 관점에서 아동의 문제행동을 이해하게 할 뿐만 아니라 아동의 문제행동의 초기상태와 발달과정에 있어 개인, 가족, 또래 및 학교요인의 인과적 영향을 이해하여 아동의 문제행동예방 및 개입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행하는 데에도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결과에 기초하여 연구문제별로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의 내면화 문제행동과 외현화 문제행동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어떠한 변화양상을 보이는지 살펴 본 결과 초등학교 4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에 이르는 4년 동안 아동들의 내면화 문제행동과 외현화 문제행동이 모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발달궤적은 아동들 간에 상당한 개인적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동과 청소년의 문제행동 발달궤적에 대한 선행연구들(이주리, 2008;

Farrell, Sullivan, Esposito, Meyer, & Valois, 2005; Galambos, Baker, & Almeida, 2003; Garber, Keiley, & Martin, 2002)과 마찬가지로 시간의 경과에 따라 아동들의 문제행동이 증가하고, 모든 아동들이 문제행동의 동일한 발달궤적을 따르는 것은 아니며 각 아동들이 경험하는 환경과 개인적인 특성에 따라 문제행동의 발달이 달라질 수 있음을 입증해주는 것이다. 따라서 아동들의 문제행동에 대한 개입에 있어서 다양한 발달궤적을 가지는 아동들의 개인차에 초점을 둔 개별접근이 필요하며, 시간의 경과에 따라 증가하는 아동들의 문제행동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아동들의 문제행동에 대한 조기개입이 필요하다.

또한 아동의 내면화 문제행동과 외현화 문제행동의 초기치와 변화율의 상관은 부적관계로 나타나 1차년도의 아동의 내면화 문제행동과 외현화 문제행동의 수준이 높을수록 아동의 내면화 문제행동과 외현화 문제행동의 증가가 느리게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초등학교 4학년일 때 문제행동의 수준이 낮았던 아동들의 경우 초기에 문제행동에 대한 개입을 하지 않으면 문제행동이 빠른 속도로 증가할 수도 있음을 밝혀낸 것으로 초기에 문제행동을 보이지 않는 아동들의 경우에도 초기의 예방적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해주고 있다.

둘째, 아동의 내면화 문제행동의 발달궤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예측해 본 결과, 아동의 내면화 문제행동의 초기치는 자아존중감, 스트레스, 부모갈등의 3가지 요인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낮은 자아존중감을 보고한 아동은 높은 자아존중감을 가진 아동들보다 내면화 문제행동을 더 많이 보인다는 Bolme-lake와 Tawnyea(2007)과 이경민(2005)의 연구결과와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경험한 아동들은 우울, 불안 등의 내면화 문제행동을 더 많이 보인다는 Self-Brown 등(2004)과 송정아와 이양희(2004)의 연구결과, 부모갈등이 높을수록 아동들이 내면화 문제행동을 더 많이 보인다는 Kimberly(2008)의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것으로 자아존중감, 스트레스, 부모갈등 요인은 횡단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본 연구에서도 다른 개인, 가족, 또래 및 학교요인들보다 아동의 내면화 문제행동을 예방할 수도, 유발시킬 수도 있는 요인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아동의 내면화 문제행동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내면화 문제행동이 발생되기 이전 발달 초기에 자아존중감 향상과 관련된 프로그램의 적용이 필요하며, 아동들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스트레스에 효과적인 대처방안을 갖도록 하는 등의 개입이 필요하다. 또한 아동의 내면화 문제행동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아동뿐만 아니라 부부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대처할 수 있는 부부갈등해결 프로그램이나 부부상담 등의 부부관계개선에 초점을 둔 아동의 부모에 대한 개입이 필요하다.

또한 아동의 내면화 문제행동의 변화율과 관련이 있는 요인은 성별, 자기통제력, 부모갈등, 일탈친구와의 교제정도, 교사애착으로 나타났다. 이는 높은 자기통제력은 내면화 문제행동의 수준을 낮춘다는 Lengua(2003)의 연구결과, 일탈친구와의 교제가 많을수록 아동의 내면화 문제행동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 Galambos 외(2003)의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것으로 아동의 내면화 문제행동의 발생 이전의 개입에는 자아존중감, 스트레스, 부모갈등의 요인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내면화 문제행동의 발생 이후의 개입에 있어서는 자기통제력, 부모갈등, 일탈친구와의 교제, 교사애착이 중요한 요인이며, 성차에 따라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함을 밝혀낸 것이다. 따라서 내면화 문제행동의 발생 이후 더 이상의 증가를 방지하고 내면화 문제행동의 수준을 낮추기 위한 방안으로는 아동들이 자신의 행동을 주어진 상황에 맞게 잘 조절할 수 있도록 돕는 자기통제력 향상 프로그램의 도입이 필요하고, 일탈친구와의 교제가 아동의 내면화 문제행동의 증가속도를 빠르게 하므로 일탈친구와의 교제에 대한 부모와 교사 등의 관심과 감독 · 관리가 절실히 필요하다. 한편 부모갈등은 아동의 내면화 문제행동의 초기수준과 변화율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아동의 내면화 문제행동에서는 상대적으로 부모갈등의 영향이 더 중요함을 밝혀내었다. 따라서 아동의 내면화 문제행동의 예방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발생 이후 내면화 문제행동의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아동의 부모에 대한 개입이 필요하다. 특히 부모갈등에 노출된 아동들의 내면화 문제행동의 발생을 감소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부모갈등의 영향력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자아탄력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의 도입이나 다양한 사회적 지지자원을 제공하는 등의 개입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셋째,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 발달궤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예측해 본 결과,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의 초기치는 성별, 자아존중감, 자기통제력, 스트레스, 부모갈등, 부모애착, 일탈친구와의 교제정도, 교사애착의 8가지 요인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아보다 남아가 1차년도에 외현화 문제행동의 수준이 높았다. 이는 문제행동에 있어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고한 연구결과들(고정자, 2003; 이경님, 2002; Dekovic, Wissink, & Meijer, 2004; Kerr & Stattin, 2000, Simons, Paternite, & Shore, 2001)을 지지하는 것으로 남아들은 여아들에 비해 공격성, 일탈행동 등의 외현화 문제행동을 더 많이 보일 수 있으므로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의 접근에 있어서 성에 따른 차별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해주고 있다.

또한 아동의 스트레스가 많을수록, 부모갈등이 높을수록 1차년도에 외현화 문제행동의 수준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스트레스가 많은 아동이 그렇지 않은 아동보다 외현화

문제행동을 더 많이 보인다는 Self-Brown 외(2004)의 연구결과와 부부갈등은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과 관련이 있음을 보고한 Ha 외(2009)의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것으로 스트레스와 부모갈등은 아동의 내면화 문제행동 뿐만 아니라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의 초기수준에도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므로 내면화 문제행동에서의 개입에서와 마찬가지로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으로 스트레스 요인과 부모갈등 요인이 긍정적이고 적응적인 양상으로 나타나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일탈친구와의 교제는 아동의 내면화 문제행동의 초기수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외현화 문제행동의 초기수준에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일탈친구와의 교제는 외현화 문제행동을 유발시키는 요인임이 밝혀졌다. 이는 일탈친구와 교제는 아동들의 외현화 문제행동의 높은 수준과 연관되는 위험요인으로 드러난 Piko 외(2005)의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것으로 외현화 문제행동에 있어서는 일탈친구와의 교제가 중요한 요인이며,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의 발생 이전에 일탈친구와의 교제에 대한 관심과 지도 · 감독이 절실히 요구됨을 시사해주고 있다.

한편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자기통제력이 높을수록, 교사와의 애착이 높을수록 1차년도에 외현화 문제행동의 수준이 낮았다. 이는 아동의 높은 자아존중감은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의 수준을 낮춘다는 Haine 외(2003)와 Donnellan 외(2005)의 연구결과, 자기통제력이 낮은 아동일수록 외현화 문제행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Batum 외(2007)의 연구결과, 교사와의 안정된 관계는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을 감소시킨다는 Karatzias 외(2002)의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다. 특히 자기통제력과 교사애착은 아동의 내면화 문제행동의 초기수준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지만 외현화 문제행동의 초기수준에는 영향을 미쳐 외현화 문제행동을 유발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이 밝혀졌다. 따라서 아동의 문제행동의 개입에 있어서 내면화 문제행동과 외현화 문제행동의 초기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다르므로 문제행동의 유형에 따른 차별화된 개입 전략이 필요하다. 특히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의 발생 이전에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높일 수 있는 개입 방안뿐만 아니라 아동의 자기통제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개입 방안과 아동이 교사와 긍정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아동과 교사 모두에 대한 개입이 필요하다.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의 변화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성별, 자아존중감, 자기통제력, 스트레스, 일탈친구와의 교제정도로 내면화 문제행동에서와는 달리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의 초기수준과 변화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부모갈등과 교사애착을 제외하고는 동일하게 나타났다. 이는 부모갈등과 교사애착은 외현화 문제행동을 발생시키는 유발요인이 될 수는 있지만 외현화 문제행동의 증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으로 부모갈등과 교사애착 요인에 대한 개입은 외현화 문제행동이 발생하기 이전에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해주고 있다. 또한 자아존중감, 자기통제력, 스트레스, 일탈친구와의 교제정도는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의 발생과 증가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므로 외현화 문제행동의 발생과 외현화 문제행동이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들 요인에 대한 적절한 개입 방안이 필요하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횡단자료를 이용한 선행연구에서 아동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제기된 부모의 학대(이재연, 한지숙, 2003; Ayoub, et al., 2006; Deckard, Ivy, & Petrill, 2006; Medley & Sachs-Ericsson, 2009), 부모애착(Crowell, 2006; Muris et al., 2001), 부모감독(Barnes, Reifman, Farrell, & Dintcheff, 2000; Deveaux, Lunn, Cottrell, & Harris, 2006), 또래애착(신유림, 2007; 최선희, 김희수, 2006; Buhs, 2001; Schwartz, Dodge, Pettit, & Bates, 2000) 등은 내면화 문제행동과 외현화 문제행동의 초기수준과 변화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동시에 예측요인으로 설정했기 때문에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에 이르는 4년 동안의 발달궤적에는 다른 요인들이 이러한 요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나타났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해 줄 이론적 근거가 부족하므로 아동의 문제행동 발달궤적을 예측하는 요인에 대한 반복적인 종단연구를 통해 이러한 요인들이 문제행동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넷째, 아동의 내면화 문제행동의 발달궤적이 어떻게 유형화될 수 있는지를 살펴 본 결과, 아동의 내면화 문제행동의 발달궤적은 3개의 집단으로 유형화되었다. 각각의 집단은 측정기간 동안 초기에는 내면화 문제행동을 거의 보이지 않다가 6학년부터 내면화 문제행동이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중학교 1학년 때는 내면화 문제행동이 급격히 증가한 집단 1(31.7%), 초기에는 내면화 문제행동의 수준이 보통으로 나타났지만 6학년을 기점으로 하여 중학교 1학년 동안 내면화 문제행동이 증가한 집단 2(50.2%), 초등학교 4학년일 때부터 중학교 1학년 때까지 내면화 문제행동의 수준이 가장 높게 유지되는 집단 3(18.1%)이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보면 초기에 내면화 문제행동의 수준이 높은 아동들은 4년 동안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의 내면화 문제행동을 보이는 반면, 그렇지 않은 아동들은 초등학교 시기에는 내면화 문제행동이 잠재되어 있다가 중학교 진학과 더불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는 우울 등의 내면화 문제행동은 13~15세 사이 청소

년기에 현저히 증가한다는 Hankin 외(1998)의 연구결과와 중학교 진학은 심리적 문제의 증가와 관련이 있다는 Schumacher(1998)와 Chung 외(1998)의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다.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진학하는 것은 학교라는 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신체적 · 정서적인 개인적 변화가 부가되기 때문에 아동들에게 힘든 시간이 될 수 있다. 아동들은 중학교 입학 후 새로운 교사와 학생을 만나고, 스스로 결정하고 행동해야 할 일이 많아질 뿐 아니라 초등학교에서 경험하지 못한 많은 규칙과 의무를 가지게 된다. 또한 중학교는 과목마다 뚜렷이 분화되어 있고 학업성적을 우선시하며 규칙이 엄격해지므로 교사의 기대와 학생-교사의 관계도 달라지게 된다(Chung, Elias, & Schneider, 1998). 그리고 이 시기에 일어나는 신체적 · 정서적 변화는 감정의 고조, 심리적 갈등과 관련되기도 한다(Berk, 1993). 이처럼 초등학생에서 중학생으로의 전환기에 외적인 변화와 내적인 변화를 동시에 경험하게 되고, 이러한 동시적인 변화는 학생들에게 전환으로 인한 갈등과 적응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게 한다. 따라서 내면화 문제행동이 잠재되어 있다가 중학교 입학 즈음에서 증가하는 집단에 속하는 아동들(81.9%)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의 전환기에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이해하고 전환기에 있는 아동들이 중학교에 잘 적응하도록 돕는 효과적인 교육 프로그램 등의 개입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 4년 동안 높은 수준의 내면화 문제행동을 보이는 아동들(18.1%)의 경우 내면화 문제행동에 대한 개입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이러한 문제행동이 청소년기를 거쳐 성인기까지 이어져 정신병리학적 증세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Hofstra et al., 2000; Koot et al., 1997) 이들을 위한 다양한 예방 및 개입전략이 강구되어야만 할 것이다.

다섯째, 아동의 내면화 문제행동의 발달궤적 유형의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 본 결과, 낮거나 보통 수준의 내면화 문제행동을 보이다가 중학교 진학 후 내면화 문제행동의 수준이 증가하는 평균 발달궤적을 보이는 집단 1과 집단 2보다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중학교 1학년에 이르는 4년 동안 내면화 문제행동이 가장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는 위험집단인 집단 3에 속할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은 자아존중감, 자기통제력, 스트레스, 부모갈등, 부모감독, 또래애착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자아존중감과 또래애착이 우울한 발달궤적을 보이는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을 구분 짓는 예측요인으로 나타난 Costello 외(2008)의 연구결과, 높은 자기통제력은 내면화 문제행동의 수준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난 Lengua(2003)의 종단연구결과,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경험한 아동들은 우울, 불안 등의 내면화 문제행동을 증가시킨다는 횡단연구(김유진, 2009; 신은영, 김경연, 1996; Self-Brown et al., 2004)의 결과, 부모갈등이 아동의 내면화 문제행동의 증가에 영향을 미친다는 횡단연구(김영희, 이정미, 2002; 이상정, 2009)의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다. 이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내면화 문제행동이 높은 수준으로 지속되는 위험집단 아동들의 문제행동이 청소년기를 거쳐 성인기까지 이어져 정신병리학적 증세로 나타나기(Hofstra et al., 2000; Koot et al., 1997) 이전에 자아존중감, 자기통제력, 스트레스, 부모갈등, 부모감독, 또래애착의 요인에 대한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해주는 것이다.

따라서 내면화 문제행동이 높은 수준으로 지속되는 위험집단 아동들의 내면화 문제행동의 발생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자아존중감과 자기통제력 향상 프로그램 등의 방안을 모색하고, 아동들이 스트레스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사회적 지지자원체계를 구축시킬 수 있는 방법, 스트레스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방법, 아동들이 자신에게 맞는 스트레스 해소법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방법 등의 개입 전략이 필요하다. 더불어 아동의 부모에게도 관심을 가져 부모들이 부부갈등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개입 방안을 마련하여 부모들이 원만하고 행복한 부부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한편 부모감독의 수준이 높을수록 보통 수준의 내면화 문제행동을 보이다가 중학교 진학 후 내면화 문제행동의 수준이 증가하는 평균 발달궤적을 보이는 집단 2보다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중학교 1학년에 이르는 4년 동안 내면화 문제행동이 가장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는 위험집단인 집단 3에 속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난 것은 부모가 아동들에게 적절하고 높은 수준의 감독을 할 경우에 문제행동을 줄일 수 있음을 보고한 선행연구들(김선숙, 2007; Patrick et al., 2005)의 결과와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본 연구에서 부모감독을 측정하는 문항들이 자녀의 활동에 대한 부모의 지식을 묻는 문항들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이를 아동들은 자신에 대한 이해와 관심의 표현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생활을 추적하고 감시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통제의 수단으로서 감독하거나 점검을 지속하는 부정적인 측면의 부모감독(Margaret & Hakan, 2000)으로 인식하여 이러한 인식이 부모-자녀간 갈등을 초래하여 이른 시기부터 높은 수준의 내면화 문제행동을 보인 것(Hayes et al., 2004)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아동들의 내면화 문제행동에 대한 개입에 있어서 부모감독은 아동들을 단지 감시하고 통제하는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아동들의 일상생활에 대한 관심과 애정의 수단으로서 부모가 자신에게 애정을 많이 갖고 있음을 인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또래애착이 높을수록 아동의 내면화 문제행동의 평균 발달궤적인 집단 1보다 위험집단인 집단 3에 속할 가능성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은 또래의 지지 등의 안정된 애착관계가 아동의 문제행동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난 횡단연구(유안진, 한유진, 최나야, 2002; Schwartz, Dodge, Pettit, & Bates, 2000)의 결과와는 차이가 있는 것이다. 또래관계에 대한 질적연구(서미선, 2009)에 따르면 우리나라 아동의 경우 또래집단 내에서도 노력하는 정도에 따라 편이 갈라지기도 하며, 친구관계의 긴밀한 정도도 달라지는 등 또래관계 내에서 친밀감, 즐거움 등의 긍정적인 측면 외에도 갈등, 경쟁 등 부정적인 측면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시기의 아동들은 아직 대인관계가 미숙하고 사회성이 충분히 발달되지 못했기 때문에 또래집단 내 자신들의 규칙이 민주적이지 않다는 것, 그러한 것들로 인해 자신들이 힘들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한국교육개발원 보고서, 1998). 따라서 이러한 특성을 가진 또래집단의 애착은 오히려 아동을 더 불안하거나 우울하게 하는 등의 지속적인 내면화 문제행동을 가지게 한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또 다른 해석으로는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의 내면화 문제행동을 보이는 위험집단 아동들은 이미 발생된 내면화 문제행동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또래애착이 내면화 문제행동을 증가시키는데 기여하는 것은 아니지만 또래애착이 낮은 아동들은 중학교 입학과 더불어 내면화 문제행동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낮은 수준의 또래애착은 내면화 문제행동을 증가시키는 요인이라고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를 입증해줄만한 이론적 근거가 부족하므로 또래애착과 문제행동에 대한 질적연구나 다른 종단연구를 통해 이러한 결과에 대한 추후 논의가 필요하다.

여섯째,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의 발달궤적이 어떻게 유형화될 수 있는지를 살펴 본 결과,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의 발달궤적은 4개의 집단으로 유형화되었다. 각각의 집단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중학교 1학년 때까지 4년 동안 외현화 문제행동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 집단 1(37.0%), 초등학교 4학년일 때 낮은 수준의 외현화 문제행동을 보이다가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중학교 1학년 동안 지속적이면서 급격하게 외현화 문제행동이 증가한 집단 2(10.0%),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중학교 1학년에 이르는 4년 동안 보통 수준의 외현화 문제행동을 지속적으로 보인 집단 3(44.9%), 초등학교 4학년일 때부터 중학교 1학년 때까지 높은 수준의 외현화 문제행동을 유지한 집단 4(8.1%)이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보면 외국의 선행연구들(Najin & Tremblay, 1999; Tremblay, et al., 2004)과는 달리 우리나라 아동들의 경우 초기에는 외현화 문제행동을 거의 보이지 않다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외현화 문제행동의 수준이 지속적으로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중학교 1학년 때는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의 외현화 문제행동을 보이는 집단의 아동들과 거의 같은 수준의 외현화 문제행동을 보이는 집단에 속하는 아동들이 10% 정도 된다는 결과는 주목할 만하다. 이는 이런 집단에 속하는 아동들에 대한 외현화 문제행동의 증가를 예방하기 위한 개입 전략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해주고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중학교 1학년 때까지 4년 동안 가장 높은 수준의 외현화 문제행동을 보이는 집단 4에 속하는 아동들은 청소년기를 거쳐 성인기에 이르는 동안 범죄나 심각한 장애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Hofstra et al., 2000; Tomblin et al., 2000) 이러한 위험집단에 속한 아동들의 외현화 문제행동이 견고해지고 습관화되기 이전에 초기 접근이 중요함을 시사해주고 있다.

일곱째,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 발달궤적 유형의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 본 결과,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중학교 1학년 때까지 외현화 문제행동을 거의 보이지 않은 집단과 초등학교 4학년 때 외현화 문제행동을 거의 보이지 않다가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중학교 1학년에 이르는 4년 동안 지속적으로 외현화 문제행동이 급증한 집단을 구분 짓는 요인은 성별, 자아존중감, 자기통제력, 스트레스, 일탈친구와의 교제정도, 또래애착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자아존중감이 낮은 아동들이 외현화 문제행동을 더 많이 보인다는 Donnellan 외(2005)의 연구결과, 높은 자기통제력은 외현화 문제행동의 수준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난 Lengua(2003)의 횡단연구결과, 스트레스가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을 예측하는 요인으로 나타난 Rafnsson 외(2006), 김유진(2009)의 횡단연구결과, 일탈친구와의 교제가 많은 아동들이 높은 수준의 외현화 문제행동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다는 Dishion(2000)의 연구결과, 또래와의 애착 수준이 높은 아동들은 외현화 문제행동의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 횡단연구(김세원, 2003; 유안진, 한유진, 최나야, 2002; Criss et al., 2002)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외현화 문제행동을 보이지 않던 아동들도 시간의 경과에 따라 외현화 문제행동이 급격히 증가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증가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자아존중감, 자기통제력, 스트레스, 일탈친구와의 교제, 또래애착 요인이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개입방안이 필요함을 시사해주고 있다. 따라서 외현화 문제행동을 나타내기 이전의 아동들에게도 그들의 자아존중감과 자기통제력을 향상시켜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아동들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스트레스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며 또래와의 안정된 애착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의 개입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외현화 문제행동의 증가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특히 일탈친구와의 교제는 아동의 내면화 문제행동 발달궤적의 유형을 예측하는 요인으로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 발달궤적의 유형을 예측하는 요인으로 나타나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개입에 있어서는 다른 요인들보다 일탈친구에 대한 부모와 교사의 관심과 관리 · 감독, 일탈친구를 포함한 집단상담, 일탈친구의 영향력을 거부할 수 있는 기술과 태도를 길러줄 수 있는 프로그램의 도입 등 아동들이 일탈친구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남아인 경우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나타난 외현화 문제행동 수준을 중학교 1학년에 이르는 4년 동안 그대로 유지하는 경향이 있고, 여아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4학년 때는 외현화 문제행동을 거의 보이지 않았지만 시간의 경과에 따라 지속적으로 외현화 문제행동의 수준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결과는 학교폭력에서 가해자가 여학생인 경우가 1999년 7%에서 2008년에는 31.8%로 무려 4배 이상 증가하고, 청소년 범죄 중 여자소년범이 해마다 급속히 증가하는 등 여자청소년의 비행과 학교폭력이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증가하는 추세(충남일보, 2009)와 맞물리는 결과로 최근에 전통적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 깨지면서 심심찮게 여자청소년의 폭력이나 비행 등이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남아인 경우 외현화 문제행동이 발생하기 이전에 외현화 문제행동에 대한 개입이 필요하며, 여아인 경우 시간의 경과에 따른 외현화 문제행동의 증가를 막기 위한 다양한 개입 방안이 필요함을 시사해주고 있다. 특히 내면화 문제행동 발달궤적의 유형에서는 성에 따른 차이가 없었으나 외현화 문제행동 발달궤적 유형에서는 이처럼 성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으므로 아동의 문제행동에 대한 개입 시에는 성차에 입각하여 차별화된 개입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중학교 1학년에 이르는 4년 동안 외현화 문제행동을 거의 보이지 않은 집단과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중학교 1학년에 이르는 4년 동안 가장 높은 수준의 외현화 문제행동을 지속적으로 보인 위험집단을 구분짓는 요인은 성별, 자아존중감, 자기통제력, 스트레스, 부모갈등, 부모애착, 일탈친구와의 교제, 또래애착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아존중감과 자기통제력, 스트레스, 일탈친구와의 교제, 또래애착은 외현화 문제행동을 거의 보이지 않았던 아동들의 외현화 문제행동을 급격하게 증가시키는 요인일 뿐만 아니라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을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에 머물게 하는 요인임을 입증해 준 것이다. 따라서 자아존중감, 자기통제력, 스트레스, 일탈친구와의 교제, 또래애착 요인은 내면화 문제행동의 개입뿐 아니라 외현화 문제행동의 개입에 있어서도 빠져서는 안 되는 중요한 요인이므로 이들 요인이 긍정적이고 적응적인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개입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부모갈등이 높을수록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중학교 1학년에 이르는 4년 동안 외현화 문제행동을 거의 보이지 않은 집단보다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중학교 1학년에 이르는 4년 동안 가장 높은 수준의 외현화 문제행동을 지속적으로 보인 위험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부갈등이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김영희와 이정미(2002)의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것으로 부모갈등은 낮은 수준의 외현화 문제행동 집단보다는 높은 수준의 외현화 문제행동 집단에 속할 가능성을 높이는 위험요인임을 발달궤적의 유형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부모갈등은 외현화 문제행동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집단에 속할 가능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 증가에는 직접적인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의 개입에 있어서 부부관계향상에 대한 개입시점이 달라져야 함을 시사해주고 있다. 즉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의 개입에 있어서 부부관계에 대한 개입은 외현화 문제행동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의 개입보다는 외현화 문제행동이 발생하기 이전의 개입이 효과적일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의 결과와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아동의 문제행동의 발달궤적에 대한 선행연구의 부족으로 아동의 문제행동의 발달궤적이나 발달궤적 유형의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는데 있어 횡단연구에서 아동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된 개인내적 요인과 가족요인과 또래 및 학교요인을 포함하여 연구하였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아동의 문제행동의 종단적 변화와 관련해서 본 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요인들이 있는지를 검토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패널조사에서 사용한 질문지를 토대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패널조사의 특성상 다양한 요인을 측정해야 하므로 하나의 요인을 측정하는 문항 수가 적다는 한계점이 있어 그 요인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을 수 있다. 따라서 하나의 요인을 단일영역으로 간주하여 다영역적 개념을 이해해야 하는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깊이 있게 측정하지 못하고 전반적인 요인의 특성만을 측정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후속연구에서는 타당화된 측정도구를 적용하여 비교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4개년의 자료를 사용하여 아동의 문제행동의 발달궤적을 예측한 것이므로 아동의 문제행동에 변화에 대해 정확하게 추정하였다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후속연구에서는 아동의 문제행동의 발달궤적을 보다 더 정교하게 추정하기 위해 추가적인 종단자료를 이용하여 아동의 문제행동의 발달궤적을 추정해 볼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에서 아동의 내면화 문제행동의 발달궤

적은 세 집단으로 유형화되었고, 외현화 문제행동의 발달궤적은 네 집단으로 유형화되었다. 후속연구에서는 추가적인 종단자료를 이용하여 이러한 집단의 구분이 타당한지를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다섯째, 본 연구는 종단자료를 이용하여 잠재성장모형의 분석을 통해 아동의 문제행동의 발달궤적과 발달궤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였다. 잠재성장모형은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변수를 처리하는 방식이 직접적으로 각 시점의 종속변수 반복측정치와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변수 사이의 인과관계를 설정한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는 변수가 지니고 있는 정보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므로 두 변수 간의 관계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이끌어내지 못한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종속변수의 변화를 가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독립변수 자체의 변화도 모형화할 수 다변량 잠재성장모형(multivariate latent growth modeling)을 적용하여 발달궤적에서 개념적 수준에 머무르던 종단적 연구가설을 실제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아동의 문제행동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변화하는 특성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대표성 있는 종단자료의 부재로 인해 문제행동의 변화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거의 전무한 상황에서 전국적인 대표성을 갖는 청소년 패널자료를 사용하여 잠재성장모형과 준모수적 집단중심모형의 방법으로 아동의 문제행동의 발달궤적을 체계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우리나라 아동들의 연령에 따른 문제행동의 변화를 실증적으로 살펴보아 아동의 문제행동 발달궤적에 대한 이해의 기초를 제공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더불어 아동의 문제행동 발달궤적이 개인에 따라 다양한 편차가 존재함을 밝히고 이러한 차이를 질적으로 상이한 발달궤적 집단으로 유형화하여 이러한 개인차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 가족 · 또래 및 학교요인을 분석함으로써 이들 요인의 변화를 표적으로 하는 예방 및 개입프로그램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참고문헌

고정자(2003). 청소년의 개인변인과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변인이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1**(7), 121-143.

고정자(2005). 부모의 감독정도와 청소년의 자기통제력이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3**(2), 1-17.

김선미(1995). 가족관계와 청소년 비행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김선숙(2007). 부모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정서조절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32**, 65-95.

김세원(2003). 사회적 지지가 학대경험 아동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김영희, 이정미(2002). 부모간의 갈등이 아동,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및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놀이치료연구, 6**(1), 95-114.

김유진(2009). 일상생활스트레스와 자아탄력성이 아동의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충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김준호, 김선애(1997). 아동학대의 실태 및 영향. **한국청소년연구, 26**, 5-28.

김준호, 김순형(1995). **가정환경과 청소년 비행.**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류경희(2003). 청소년의 학교생활 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관련 변인. **대한가정학회지, 41**(12), 147-168.

문은식(2002). 고등학생이 지각한 학교의 심리적 환경과 목표지향성과 관계. **교육심리연구, 16**(4), 5-21.

박경숙, 손희권, 송혜정(1998). 학생의 왕따(집단 따돌림 및 괴롭힘) 현상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보고서(RR98-19).

박진경, 도현심(2001). 어머니의 감독 및 감독방법이 청소년의 외현화, 내면화 행동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9**(12), 129-140.

배병렬(2004). **구조방정식 모델을 위한 SIMPLIS 활용과 실습.** 서울: 청목출판사.

보건복지가족부(2009). **정신보건사업안내**. 서울: 보건복지가족부.

서미선(2009). 초등학교 5학년 여학생 또래집단의 질적 특성. 공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손미영(2009). 가족갈등과 자기통제가 초기 청소년의 학교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충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송정아, 이양희(2004)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와 반사회적 행동과의 관계연구. **생활과학, 7**, 189-206.

신유림(2007). 학령기 아동의 사회적 위축성과 친구관계. **아동학회지, 28**(5), 193-207.

신은영, 김경연(1996). 아동, 청소년의 우울 수준에 있어서 관여, 내적통제감의 스트레스 완화 효과. **대한가정학회지, 34**(6), 195-205.

신정이, 황혜원(2006). 초기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심리사회적 적응에 대한 생태체계적 보호요인의 영향 연구. **청소년학연구, 13**(5), 123-154.

심희옥(1997). 아동 후기 초등학교 학생의 내적 외적 문제행

동인 우울성향과 반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아동학회지, 18**(1), 39-52.

유안진, 한유진, 최나야(2002). 시설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사회적지지 지각과 공격성 간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40**(3), 67-82.

이경님(2001). 초기 청소년의 어머니 애착과 충동 통제가 비행에 미치는 영향. **생활과학연구 논문집, 9**, 91-103.

이경님(2002). 청소년의 애착, 자아존중감 및 충동통제가 비행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0**(8), 191-206.

이경민(2005). 중학생이 지각하는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아존중감 및 우울과의 관계.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이경상, 조혜영, 박현수(2004). **한국 청소년 패널조사(KYPS) Ⅱ : 조사 개요 보고서.** 서울 : 한국청소년개발원.

이경진, 조성호(2004). 청소년 자살 고위험 집단의 심리적 특성.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6**(4), 667-685.

이근욱(2005). 자녀가 지각한 부모-자녀의 의사소통 양상이 고등학생의 자아존중감 및 우울에 미치는 영향.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이상정(2009). 어머니의 우울, 부부갈등 및 유아의 정서가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이주리(2008). 청소년의 내면화와 외현화 문제행동의 발달궤적: 잠재성장모형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6**(5), 51-60.

이재연, 한지숙(2003). 아동과 부모, 가족환경 특성에 따른 아동학대 실태 연구. **아동학회지, 24**(2), 63-78.

정미경, 김영희(2003). 어머니의 아동기 양육경험, 우울, 부부갈등 및 양육행동과 학령기 아동의 부적응. **대한가정학회지, 41**(8), 123-137.

정익중(2007). 청소년기 자아존중감의 발달궤적과 예측요인. **한국청소년연구, 47**, 127-166.

최선희, 김희수(2006). 아동의 비행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체계적 요인들의 다차원 상호작용. **한국아동복지학회지, 21**, 233-258.

최정연(2006). 청소년의 생활환경이 학교부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인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충남일보(2009. 2. 25.). 저(底) 연령층 범죄 증가 추세. http://www.chungnamilbo.com/news/article.html?no=81134에서 2009년 4월 1일 인출.

한미현(1993). 가정의 경제적 스트레스 및 부모의 지지에 따른 아동의 행동문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1**(2), 182-194.

호주동아일보(2006. 10. 28). 행동장애 유치원생 평생 정신질환 전조. http://www.hojudonga.com/?document_srl=1에서 2009년 4월 5일 인출.

Alberto, P. A., & Troutman, A. C.(2006). *Applied behavioral analysis for teachers*(7th Ed.). Upper Saddle River, NJ: Pearson Merrill Prentice Hall.

Ayoub, C., O'Connor, E., Rappolt-Schlichtmann, G., Fischer, K., Rogosch, F., Toth, S., et al.(2006). Cognitive and emotional differences in young maltreated children: A translational application of dynamic skill theory.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18*, 679-706.

Barns, G. M., Reifman, A. S., Farrell, M. P., & Dintcheff, B. A.(2000). The effects of parenting on the development of adolescent alcohol misuse: A six-wave latent growth model.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2*, 175-186.

Batum, P., & Yagmurlu, B.(2007). What counts in externalizing behaviors? The contributions of emotion and behavior regulation. *Current Psychology, 25*(4), 272-294.

Beam, M. R., Gil-Riva, V., Greensberger E., & Chen, C.(2002). Adolescent problem behavior and depressed mood: Risk and protection within and across social contexts, *Journal of Youth Adolescence, 31*, 343-357.

Berk, L.(1993). *Infants, children, and adolescents*. Needham Heights, MA: Allyn & Bacon.

Bolme-Lake, & Tawnyea, L.(2007) *Predicting internalizing problems in at-risk children and adolescents*. Minneapolis: Capella University.

Brendgen, G., Vitaro, F., & Bukowski, W. M.(2000). Deviant friends and early adolescents' emotional and behavioral adjustment.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10*, 173-189.

Brody, G. H., Dorsey, S., Forehand, R., & Armistead, L.(2002). Unique and protective contributions of parenting and classroom processes to the adjustment of African American children living in single-parent families, *Child Development, 73*, 274-286.

Brody, G. H., Kim, S., Murry, V. M., & Brown, A. C.(2004). Protective longitudinal paths linking child competence to behavioral problems among

African American siblings. *Child Development, 75*, 455-467.

Bronfenbrenner, U.(1979). *The ecology of human development: Experiments by nature and design*. Cambridge, Massachusetts: Harvard University Press.

Buhs, E.(2001). *Classroom social relationships in middle childhood: Effects of participatory behaviors and school adjustment*. Paper presented at the biennial meeting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Minneapolis, Minnesota.

Chung, H., Elias, M., & Schneider, K.(1998). Patterns of individual adjustment changes during the middle school transition.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36*, 83-101.

Chung, I. J., Nagin, D. S., Hawkins, J. D., & Hill, K. G.(2001). A didactic example of mixture modeling applied to the study of development in adolescent offending.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Studies, 17*, 197-218.

Costello, D. M., Swendsen, J., Rose, T. S., & Dierker., L. C.(2008). Risk and protective factors associated with trajectories of depressed mood from adolescence to early adulthood.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76*(2). 173-183.

Costello, E. J., Mustillo, S., Erkanli, A., Keeler, G., & Angold, A.(2003). Prevalence and development of psychiatric disorders in childhood and adolescence.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60*(8), 837-844.

Criss, M. M., Pettiy, G. S., Bates, J. E., Dodge, K. A., & Lapp, A. L.(2002). Family adversity, positive peer relationships, and children's externalizing behavior: A longitudinal perspective on risk and resilience. *Journal of Child Development, 73*(4), 1220-1237.

Crowell, J. A.(2006). Attachment and externalizing disorder: A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perspective.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45*(4), 440-451.

Daniels, D., & Moos, R. H.(1990). Assessing life stressors and social resources among adolescents: Applications to depressed youth.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5*, 268-289.

Deckard, K., Ivy, L., & Petrill, S. A.(2006). Maternal warmth moderates the link between physical punishment and child externalizing problems: A parent-offspring behavior genetic analysis. *Parenting: Science and Practice, 6*, 59-78.

Deković, M., Wissink, I. B., & Meijer, A. M.(2004). The role of family and peer relations in adolescent antisocial behaviour: Comparison of four ethnic groups. *Journal of Adolescence, 27*, 497-514.

Deveaux, L., Lunn, S., Cottrell, L., & Harris, C.(2006). Youth and parental perception of parental monitoring and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youth depression, and youth risk behaviors.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34*(10), 1297-1310.

Dishion, T. J.(2000). Cross-setting consistency in early adolescent psychopathology: Deviant friendships and problem behavior sequelae. *Journal of Personality, 68*(6), 1109-1126.

Donnellan, M. B., Trzesniewski, K. H., Robins, R. W., Moffitt, T. X., & Caspi, A.(2005). Low self-esteem is related to aggression, antisocial behavior, and deliquency. *Psychological Science, 16*(4), 328-335.

Dubow, E. F., Tisak, J., Causey, D., Hryshko, A., & Reid, G.(1991). A two year longitudinal study of stressful life events, social support, and social problem-solving skills: Contributions to children's behavioral and academic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2*, 583-599.

Duncan, S. C., Duncan, T. E., & Strycker, L. A.(2000). Risk and protective factors influencing adolescent problem behavior: A multivariate latent growth curve analysis. *Annals of Behavioral Medicine, 22*, 103-109.

Duncan, T. E., Duncan, S. C., Strycker, L. A., Li, F., & Alpert, A.(1999). *An introduction to latent variable growth curve modeling: Concepts, issues, and applications*. Mahwah, New Jersey: Lawrence Erlbaum Associates.

Espelage, D. L., Holt, M. K., & Henkel, R. R.(2003). Examination of peer group contextual effects on aggressive behavior during early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74*, 205-220.

Farrell, A. D., Sullivan, T. N., Esposito, L. E., Meyer, A. L., & Valois, R.(2005). A latent growth curve analysis of the structure of aggression, drug use,

and delinquent behaviors and their interrelations over time in urban and rural adolescents.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15*, 179-204.

Galambos, N. L., Baker, E. T., & Almeida, D. M.(2003). Parents do matter: trajectories of change in externalizing and internalizing problems in early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74*(2), 578-594.

Garber, J., Keiley, M. L., & Martin, N. C.(2002). Developmental trajectories of adolescents' depressive symptoms: Predictors of change.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70*(1), 79-95.

Ha, T., Overbeek, G., Vermulst, A., & Engels, R.(2009). Marital quality, parenting, and adolescent internalizing problem: A three-wave long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23*(2), 263-267.

Haine, R. A., Ayers, T. S., Sandler, I. N., Wolchik, S. A., & Weyer, J. L.(2003). Locus of control self-esteem as stress-moderators or stress -mediators in parentally behaved children. *Death studies, 27*(7), 619-640.

Hankin, B. L, Abramson, L. Y., Moffitt, T. E., Angell, K. E., Silva, P. A., & McGee, R.(1998). Development of depression from preadolescence to young adulthood: Emerging gender differences in a 10-year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7*(1), 128-140.

Hawkins J. D., Herrenkohl, T. I., Farrington, D. P., Brewer, D., Catalano, R. F., Harachi, T. W., et al.(2000). *Predictors of youth violence.* OJJDP Juvenile Justice Bulletin. U. S. Department of Justice.

Hayes, L., Hudson, A., & Matthews, J.(2004). Parental monitoring behaviors: A model of rules, supervision and conflict. *Behaviour Therapy, 35*, 587-604.

Hofstra, M. B., Van der Ende, J., & Verhulst, F. C.(2000). Continuity and change of psychopathology from childhood into adulthood: A 14-year follow-up study.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37*, 850-858.

Jones, B. L., Nagin, D. S., & Roeder, K.(2001). A SAS procedure based on mixture models for estimating developmental trajectories. *Sociological Methods and Research, 29*, 374-393.

Jones, D. J., & Forehand, G.(2003). The stability of child problem behaviors: A longitudinal analysis of inner-city African American children. *Journal of Child Family Studies, 12*(2), 215-227.

Jonson-Reid, M., & Barth, R.(2000). From maltreatment report to juvenile incarceration: The role of child welfare services. *Child Abuse & Neglect, 24*, 505-520.

Karatzias, A., Power, K. G., & Swanson, V.(2002). Bullying and victimization in Scottish secondary schools: Same or separate entities?. *Aggressive Behavior, 28*, 45-61.

Kerr, M., & Stattin, H.(2000). What parents know, how they know it, and several forms of adolescent adjustment: Further support for a reinterpretation of monitoring. *Developmental Psychology, 36*, 366-380.

Kiesner, J., Poulin, F., & Nicotra, E.(2003). Peer relations across contexts: individual-network homeophily and network inclusion in and after school. *Child Development, 74*, 1243-1328.

Kimberly, A. R.(2008). Children's Responses to interparental conflict: A meta-analysis of their association with child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79*(6), 1942-1956.

Kline, R. B.(1998).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The Guilford Press: New York.

Koot, H. M., Van Den Oord, E. J. C. G., Verhulst, F. C., & Boomsma, D. I.(1997). Behavioral and emotional problems in young preschoolers: cross-cultural testing of the validity of the child behavior checklist/2-3.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25*, 183-196.

Laird, R. D., Pettit, G. S., Bates, J. E., & Dodge, K. A.(2003). Parents' monitoring-relevant knowledge and adolescents' delinquent behavior: Evidence of correlated developmental changes and reciprocal influences. *Child Development, 74*, 752-768.

Lengua, L. J.(2003). Associations among emotionality, self-regulation, adjustment problems, and positive adjustment in middle childhood.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24*(5), 595-614.

Margaret, K., & Hakan, S.(2000).What Parents Know, How They Know It, and Several Forms of Adolescent Adjustment: Further Support for a Reinterpretation of Monitoring. *Developmental Psychology, 36*(3), 366-380.

Martino, S, C., Ellickson, P, L., Kiein. D, J., & McCaffrey, D.(2007). Multiple trajectories of physical aggression among adolescent boys and girls. *Aggressive Behavior, 34*, 61-75.

Medley, A., & Sachs-Ericsson, N.(2009). Predictors of parental physical abuse: The contribution of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disorders and childhood experiences of abuse.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113*(3), 244-254.

Muris, P., Schmidt, H., Lambrichs, R., & Meesters, C.(2001). Protective and vulnerability factors of depression in normal adolescents. *Behavior Research and Therapy, 39*, 555-565.

Najin, D. S., & Tremblay, R. E.(1999). Trajectories of boys' physical aggression, opposition, and hyperactivity on the path physically violent and nonviolent juvenile delinquency. *Child Development, 71*(5), 1181-1196.

National Conference of State Legislatures, http://www.ncsl.org/ (2009. 5. 5)

Patrick. M. R., Snyder, J., Schrepferman, L. M., & Snyder, J.(2005). The joint contribution of early parental warmth, communication and tracking and early child conduct problems on monitoring in childhood. *Child Development, 67*(5), 999-1014.

Piko, B. F., Fitzpatrick, K. M., & Wright, D. R.(2005). A risk and protective factors framework for understanding youth's externalizing problem behavior in two different cultural settings. *European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14*(2), 95-103.

Pratt, T. C., & Cullen, F. T.(2000). The empirical status of Gottfredson and Hirschi's general theory of crime: A meta-analysis. *Criminology, 38*, 931-964.

Rafnsson, F. D., Jpnsson, F. H., & Windle, M.(2006). Coping strategies, stressful life events, problem behaviors, and depressed affect. *Anxiety, Stress, and Coping, 29*(3), 241-257.

Robinson, R. R., & Frank, D. L.(1994). The relation between self-esteem, sexual activity, and pregnancy. *Adolescence, 29*, 27-35.

Ryan, R. M., Stiller, J., & Lynch, J. H.(1994). Representations of relationships to teachers, parents, and friends as predictors of academic motivation and self-esteem.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14*, 226-249.

Scaramella, L. V., Conger, R. D., Spoth, R., & Simons, R. L.(2002). Evaluation of a social contextual model of delinquency: A cross-study replication. *Child Development, 73*, 175-195.

Schumacher, D.(1998). *The transition to middle school* (Report No. EDO-PS-98-6). Washington, DC: Clearinghouse on Elementary and Early Childhood Education. (ERIC Document Reproduction Service No. ED 422119)

Schwartz, D., Dodge, K. A., Pettit, G. S., & Bates, J. E.(2000). Friendship as a moderating factor in the pathway between early harsh home environment and later victimization in the peer group. *Developmental Psychology, 36*, 646-662.

Self-Brown, S., LeBlanc, M., Albert, A., Wingate, A., & Kelley, M. L.(2004). *Parental Exposure to Traumatic Events as a Predictor of Mental Health Outcomes in Youth Exposed to Community Violence*. A poster presented at the 38th Annual Convention of the Association for Advancement of Behavior Therapy, New Orleans, L.A.

Siegel, L. J., & Senna, J. J.(1994). *Juvenile delinquency: Theory, practice and law*. St. Paul, Minnesota: West Publishing Company.

Simons, K. J., Paternite, C. E., & Shore, C.(2001). Quality of parent/adolescent attachment and aggression in young adolescents.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21*, 182-203.

Siyez, Diğdem Müge.(2008). Adolescent self-esteem, problem behaviors, and perceived social support in Turkey.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36*(7), 973-984

Tomblin, J. B., Zhang, X., Buckwalter, P., & Catts, H.(2000). The association of reading disability, behavioral disorders, and language impairment among second-grade children.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and Allied Disciplines,*

41(4), 473-482.

Tremblay, R. E., Nagin, D. S., Seguin, J. R., Zoccolillo, M., Zelazo, P. D., Boivin, M., et al.(2004). Physical aggression during early childhood: Trajectories and predictors. *Pediatrics in Review, 114*(1), 43-50.

Van den Oord, J. C. G., & Rowe, D. C.(1997). Continuity and change in children's social maladjustment: A developmental behavior genetic study. *Developmental Psychology, 33*, 319-332.

Widom, C.(2000). *The Cycle of Violence. Available on-line*. U.S. Department of Justice, National Institute of Justice.

접 수 일 : 2010년 1월 18일
심사시작일 : 2010년 2월 4일
게재확정일 : 2010년 3월 11일